승가 교육체계 대학 · 강원 상호보완

조계종 교육지도자 회의 '승가교육' 토론

지명스님 "강원을 승가대학 분교로"

지운스님 "강원 삼학체계 유지해야"



◇9일 열린 조계종 교육지도자 회의에서 승가교육체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21세기 승가교육의 바람직한 전개방향은 전통성을 지키는 가운데 교과과정 개편, 공유 등 지방승가대학(강원)과 대학의 상호보완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개원 3주년을 맞아 9일 서울 법련사에서 개최한 교육지도자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승가 교육체계와 관련, 지방승가대의 대학으로의 전환과 전통성 고수 및 체계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전통을 존중하며 시대성을 반영한 승가교육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승가교육의 교과과정에 대하여'를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승가교육을 종단차원에서 기획, 장려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교 기본원리 학습 △불교 전통성 계승 △교화불사 실행 수련 △교단수호, 관리능력 배양 등으로 기본교과목이 개선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발제 '승가교육 체계 개선에 대하여'를 발표한 지명스님(청계사 주지)은 "그동안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지방승가대학의 위상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강원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쪽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쪽 모두 대학과 강원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며 "상호보완을 전제로한 개선방안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명스님은 지방승가대학의 교육 내용, 방식, 시설 개선 및 교수확보를 전제하며 "지방승가대학을 중앙승가대학교의 분교나 전문교육기관(학림)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대해 제3발제에서 지운스님(송광사강원 강주)은 '전통승가교육의 방향에 대하여'를 통해 "지방승가대학을 대학체제로 바꾼다면 승가의 공동체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며 "지방승가대학의 삼학체계는 승가의 기본체계이므로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지운스님은 "지방승가대학은 그 본질에 있어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수행도량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삼학체계와 공동체생활, 선지향의 교육지향 등 지방승가대학의 특징은 한국승가의 진통을 유지하는 질서"라고 강조했다. 또 "교학위주의 대학체제로 바꾼다면 염불·독송·포살 등의 수행방법을 말살, 본교수행유산을 없애게 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분과토론에서는 △교육과 수행은 같은 것 △종단차원의 공통 필수과목 선정 △교수법 등 지방승가대학의 문제점 보완 필요 등의 결론이 도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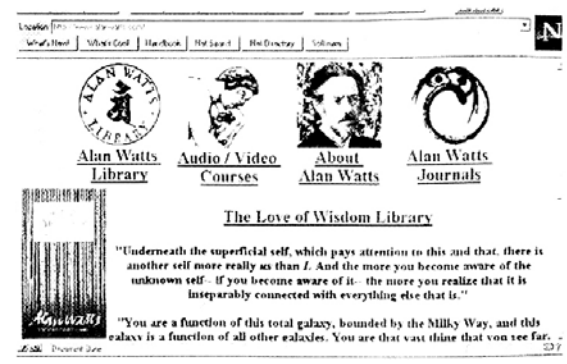
토론에 나선 일진스님(운문사)은 "교육과 수행 모두 생활속으로의 회향이 더 중요하다"며 "배우고 수행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탁연스님(봉녕사)은 "교육체계가 각각 다른 지방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등의 체계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원창스님(법주사)은 "지방승가대학의 문제점은 교과과정의 편성이라기 보다는 교수법과 강사진의 문제"라며 "전통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리발달사적 체계에 따른 교과목 편성 등 현 교과과정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와츠와 베네트



미국과 영국에서 불교학의 터전을 마련한 학자들을 꼽으라면 단연 알렌 와츠(美, 1915~1973)와 알렌 베네트(英, 1872~1923). 불자 네티즌이 이들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인터넷을 탐방하는 또다른 재미이다.

와츠는 동양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갈증이 심했던 60~70년대의 미국사회에 불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했던 불교학자다.

△알렌와츠(http://www.deoxy.org/watts.htm)에서는 그의 강의록과 에세이를 열람할 수 있고, 청취도 가능하다. 이중 '자아와 질서(Self and Order)' '의식의 본질(The Nature of Consiousness)' '공의 세계(The World As Emptiness)' '선(Zen)' 등 10회 분량의 강의와 에세이 3편을 열람할 수 있다.

△와츠가상대학(http://www.allanwatts.com)에서는 가상도서관을 운영, 와츠의 저서중 〈영적인 것을 보라〉 〈도(道)〉 〈물결같은 진리〉 〈철학의 도(道)〉 등 20여권을 소개한다. 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교' '동·서양의 선(禪)' 등의 과목을 가상공간에서 수강할 수 있다.

△베네트기념회(http://www.globalserve.net/~shri/bennett.html)을 방문하면 영국인 불교학자 알렌 베네트의 생애와 사상을 열람할 수 있다. 그는 상좌부 불교를 깊은 통찰력으로 언어와 문화가 이질적인 서구사회에 전한 학자다. 버마불교에 특별한 애착을 가졌던 그는 '서구 불교도 교우회(Buddhsit Brotherhood of the West)'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베네트가 남긴 '불교와 서구' '마음 다스리기' 등 20여편의 글을 열람할 수 있다.

선구 불교지성들과 인터넷 만남

"좌선요체는 철저한 非思量"

김호귀씨 논문발표

좌선에 있어 마음의 존재방식을 나타내는 '비사량(非思量)'은 상호간의 의식이나 무의식의 정신작용이 없어진 상태의 순수한 의식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호귀씨(동국대 선학과 강사)는 〈한국불교학〉 제23집에 발표한 논문 '좌선에 있어서 비사량의 심리'를 통해 "비사량을 단순히 '사량이 아니다'는 의미의 형이하학적인 의미로 파악하여 좌선에 의한 무의식적인 상태, 곧 무념무상이 되는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사량'은 조동종지(曹洞宗旨)의 중요한 개념을 나타내 주는 말로, 곧 간화선과 '견성(見性)'의 관계는 묵조선과 '비사량'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약산유엄(藥山惟儼:745~828)과 한 승려가 주고 받은 문답의 결론이다.

김씨는 "비사량은 모든 관념과 의욕과 감정 등의 의식활동을 추구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의식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즉 비사량에 철저한 것이 좌선의 요체로, 몸과 마음이 모두 자기의 본래심성으로 돌아가는 가장 종요로운 방법이 좌선이라는 것.

김씨는 "공안(公案)이라는 극도의 긴장속에서 심의식이 무의식을 통해 의식화 되어 가는 과정을 견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공안선의 행태라면, '비사량'이라는 무분별한 사량의 전체속에 다시 사량을 벗어나 탈체현성(脫體現成)의 의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묵조의 심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선무학회 '영문논집' 발간

禪과 타학문 접목 한국禪 세계에 알려



선(禪)을 화두로, 철학 문학 의학 스포츠 등을 연구한 영문 논문집이 발간됐다.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철·사진)는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학자 20명의 논문을 수록한 학술논집 제7집을 영문판으로 발간했다. 'THE JOURNAL OF SŎN-MU' 제하의 이번 학술 논집은 선과 다른 학문과의 접목을 시도,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서구인들에게 '한국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박남진씨(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현대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한 불교적 접근'에서 "우울증은 탐심, 진심을 통해서 쌓인 업(業)의 결과"라고 전제하며 "결국 우울증의 치료는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탐진치의 소멸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선 무(武)의 기본이해와 사상(김철·원감대) △불교 증관학파의 명상수행법과 논리적 추리(김용표·동국대) 등이 수록돼 있다. (0653)850-6619

학술단신

23일 불교문화硏 세미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고학력시대의 불교의 진로'를 주제로 23일 오후1시30분 학술문화관 중극장에서 봉축세미나를 갖는다.

권기종교수의 발제강연과 함께 △고학력자의 종교성향과 특징(김용표) △고학력자를 위한 불교교육방안(목정배) △고학력시대의 불교의식과 수행(법산스님)이 발표되며 서윤길교수(동국대 교무처장), 박선영교수(동국대 교육학과), 공종원씨(조선일보 논설위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02)260-3500

'지관스님 특별강좌' 마련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선전강독과 한국불교금석학 '지관스님 특별강좌'를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선전강독은 〈경덕전등록〉을 교재로 하며 매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한국불교금석학은 〈역대교승비문-조선시대편 1〉로 격주 목요일 오후7시30분에 강의한다. (02)765-9602

"한국 종교계 외적 치장 자제"

정진홍교수 주장

"한국종교는 '종교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종교에 대한 발언'에 대해 귀기울이고, 종교현실의 허구성과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주최로 2일 열린 '새 가치관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진홍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발표논문 '난국극복을 위한 신앙개혁-우리 종교문화의 성숙을 위하여-'에서 "종교문화가 철저한 위선의 모습으로 읽혀지는 것은 종교가 자기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며 "종교가 '물질적 부'를 신자들에게 약속하고 스스로도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단절하는 것이 종교적 진실의 규범이라고 주장한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수는 "밝음과 따뜻함, 평화로움과 아늑함, 결단과 초연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의 발언'으로 볼 때 종교의 현존은 크고 요란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문화는 시끄럽고 요란하다"며 "그러한 것으로 치장된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뿐 거기서 쏟아져나오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즉 삶의 규범으로 구체화하지 못한다면 '종교의 발언'은 철저히 자기 함몰이거나 자기 기만의 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

정교수는 종교가 '종교에 대한 발언', 정체성 정직성 가능성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소식

불교신도 마이클스미드 '훌륭한 LA 시민' 선정

L.A 타임즈는 6일 '3월의 훌륭한 L.A 시민'으로 불교신도인 마이클 P. 스미드(48·자동차 세일즈)를 선정했다.

매달 '훌륭한 시민'을 선발해 온 L.A 타임즈는 "그동안 거리 부랑자 급식, 인종간 우호, 마약중독자 간호 등의 선행을 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L.A 지부 창가학회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마이클은 28년간 자동차 세일즈를 해 오면서 고객들에게 불교를 포교해 왔다.

스미드는 수상 소감을 통해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생활과 수행을 함께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송대 불상불두 도난 북경 시민들 불안 고조

중국 북경에서 송대 불상이 훼손되고 머리부분이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499년(송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160cm 가량의 돌부처로, 불상이 서있는 인접지역에서 종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소리를 내어 북경인들이 신성하게 여겨왔다.

로이터 통신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문화재 해외 밀반출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서 이번 사건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150,000字의 名蹟을 集大成한 完璧한 大字典

국내 최고의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의 체본을 수록한 서예법첩

如初 金膺顯先生 古稀紀念 書集 全四卷 !!

書道大字典

文字學·篆刻·史學·建築學·畵學의 必須 字典

書藝의 敎本



4×6판 3000쪽 특급양장 상하권 각 ₩90000

주문 : 722-0861~3

正統 書藝의 硏究에!!
格調 높은 글을 쓰는데!
集字를 하는데 필수 字典!

東方書範 (1집) 1~10



구입 및 문의처
이화경영연구소
출판영업부
T. 02)730-6685~6
F. 02)735-9366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1집 전10권/
값250,000원

國內 最高의 書藝大家 如初 金膺顯 선생의 체본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제1집(1권~10권의 내용)

第一卷 正音 國文 楷本體 宮體
第二卷 石鼓文 泰山刻石 琅琊臺刻石
第三卷 隸體碑 (上)
第四卷 隸體碑 乙瑛碑 張遷碑 曹全碑
第五卷 隸體碑 禮器碑
第六卷 古篆集字聖教書 (上) 우은집자성교서 上
第七卷 古篆集字聖教書 (下) 우은집자성교서 下
第八卷 孟子序 (集篆帝鑑圖說 번역) 集篆시문집
第九卷 書 譜 (上) 서보 상
第十卷 書 譜 (下) 서보 하

東方書範 (2집) 11~20



여초김응현 편저/
국배판/
제2집 전10권/
값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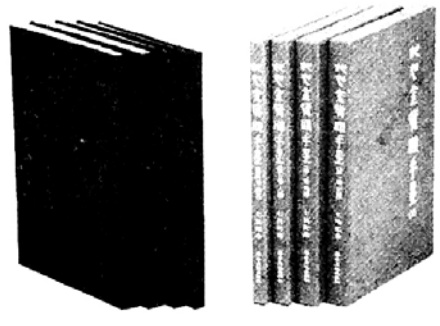
1集에 이은 最高의 書藝 敎本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한 각종 비문 收錄!!

제2집(11권~20권의 내용)

문의 : 722-0861~3

第十一卷 散氏盤 毛公鼎 선사변 모공정
第十二卷 石鼓文 孟頫臨石鼓 선맹임석고
第十三卷 集聖教序 (集篆帝鑑圖說 번역) 집성교서
第十四卷 貫子碑 (集篆帝鑑圖說 번역) 관자비
第十五卷 顧文公碑 정문공비
第十六卷 晉祠銘 高貞銘 조사명 고정명
第十七卷 祀姚氏 祭姪文稿 祭伯文稿
第十八卷 爭座位稿 정좌위고
第十九卷 魯公草 (上) 금하장 상
第二十卷 魯公草 (下) 금하장 하

如初金膺顯手墨



如初金膺顯 著/8절판/150g아트지/올칼라/최고급양장케이스/각권300쪽내외/정가 400,000원

詩·書에 묻혀 살아오신 如初先生님의 七十餘 星霜이 이 書集에 담겨있다.

완벽한 作品解說! 올칼러로 印刷하여 作品의 생생함을 한층 높였고 大規模 作品만도 數十點에 달해 과히 國內最高의 超大型 作品集이다.

이화경영연구소 : 722-0861~3

주요내용
1卷 天 篇 51년 국전출품작부터 년대순으로 나열
2卷 地 篇 95년 작품까지 모두 나열하였음
3卷 人 篇 도자기, 비문, 편액, 인보 등
4卷 雜文篇 모든작품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음